

음악교과를 위한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사례 연구*

신 지 혜**

본 연구는 음악교과에 초점을 맞춘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성찰저널, 음악수업관찰, 인터뷰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동료로부터 다양한 음악수업전략을 배울 수 있었고, 음악교과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며, 자신의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초등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적인 변화가 공동체 밖의 개개인의 학교에 있는 동료교사들에게까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공동체의 소수의 인원과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은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교사학습공동체, 초등교사, 음악교과, 전문성 신장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2.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속성
3.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사 및 학교의 변화와의 관계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도구
3. 자료분석

IV. 결과

1.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개인적 참여 의미
2. 초등교사학습공동체 내부로부터 학교까지로 연결된 변화
3.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1942]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jhshin99@ewha.ac.kr)

I. 서론

최근 들어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2013),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기본법에 교사는 그 직위에 맞는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의 성장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최근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오옥환, 200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사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사연수이다(서경혜, 2009; Vavasseur & MacGregor, 2008). 대부분의 연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사연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김병찬, 2007; Bush, 2007). 교사들은 특히 각 교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연수내용과 강의위주의 방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수가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수 후에 지속될 수 있는 교사의 의문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 전문가나 관리자 중심의 일회성의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 중 교사학습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토론하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임이다(서경혜, 2009). 교사학습공동체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교사연수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enger, 1998).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는 현재 국내 학교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형성과정과 계기, 운영방식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박나실 외, 2015; 선우진, 방정숙, 2014; 이승배 외, 2010), 외부협력기관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김송자 외, 2013; 오필석,

2014; 조운정, 배정현, 2015),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교의 교사들 간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정민희 외; 2014)로 나뉠 수 있다.

이렇듯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및 학교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적용의 범위가 수학, 과학, 사회 등 비예술교과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신지혜,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교과에 초점을 맞춘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와 관련한 초등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음악교과와 관련한 초등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안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음악교과와 관련한 초등교사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유지 및 발전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교사학습공동체는 일반적으로 한 그룹 안에서의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수업실제를 탐구하고 학습 중심의 발전하는 방안을 찾는 공동체이다(Stoll & Louis, 2007).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협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Rogers & Babinski, 2003).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문가공동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모임 안에서 교사들은 서로 협동하며 전통적인 교수방식을 재연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간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협력하여 교수 실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한다(Stoll & Louis, 2007). 일반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는 전문가학습공동체와 구별되는데,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교사가 핵심구성원이지만 교장, 교감, 지역사회구성원 등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포함한다(서경혜, 2009; DuFour, 2004).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은 단순한 교수기술이나 지식습득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동을 통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Stoll & Louis, 2007).

2.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속성

교사학습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나이, 전공, 직위와 상관없이 수평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서경혜, 2009; Eaker et al., 2002), 이 과정에서 모임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발생한다(김대훈, 2014; 김송자 외, 2013). 교사들은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교수·학습에 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추구하고, 수업의 의도된 결과를 고찰하고,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이나 공동체의 생산적인 결과는 이들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이승호 외, 2015). 또한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서로간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소통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대훈, 2014; Shin, 2013).

둘째, 구성원들 간의 협의된 가치와 비전이다(서경혜, 2009; DuFour & Eaker, 1998; Wenger, 1998).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실현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급과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때 교사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다 구체화된 태도, 행동, 실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DuFour & Eaker, 1998; Wenger, 1998). 즉 협의된 가치와 비전은 공동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Watson, 2014). 교사들은 학생들의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교사학습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교 내의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 전략, 생각 등을 동료교사들과 협동 안에서 고안하게 된다(DuFour, 2004).

넷째, 구성원들은 가설이나 이론을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검증하는 실천적인 과정을 실행한다(서경혜, 2009). 또한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추가적인 피드백 및 자극을 받을 수 있고(이승호 외, 2015), 관련된 심화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하명진, 2011), 더 나아가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Pelletier, 2013).

3.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사 및 학교의 변화와의 관계

최근 들어 교사 및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적극 활용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학습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선우진, 방정숙, 2014; 정민희 외, 2013; 조운정, 배정현, 2015),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박나실 외 2015; 이은혜, 2015), 이를 통해서 자신이 기존에 하던 수업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수업전략들을 고안할 수 있었다(이은혜, 2015; 정민희 외, 2013; Brodie, 2014; Pelletier, 2013; Ryoo et al., 2015). 또한 동료교사들과 협동하고 배운 지식을 실천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의 삶을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선우진, 방정숙, 2014; 정민희 외, 2013; 조운정, 배정현, 2015). 이에 더 나아가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동료교사들로부터 사회적,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얻을 수 있었다(Lalor & Abawi, 2014; Ryoo et al., 2015).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 개개인에게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공동체 밖의 동료교사나 학교에까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송자 외, 2013; Niesz, 2010; Shin, 2013).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는 다른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조장하는 학교의 문화적 특성의 부족(김송자 외, 2013)과 비슷한 목적이나 가치를 가진 동료교사의 부재(Niesz, 2010; Shin, 2013)를 들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수의 초등교사는 음악수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이 분야에서의 재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정, 2002). 따라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과와 관련된 서로간의 지

식과 전략을 함께 토론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교사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에 관심이 있어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 때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이러한 관심사에 따라 음악교과에 관한 재교육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둘째, 교사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중견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학년과 학습상황에서의 음악수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다. 셋째, 연구가 진행되는 2014-2015년에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거나 음악전담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다. 넷째, 모임의 원활함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된 경기지역의 F 대학교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근무지가 있는 교사들이다.

초등학교 교사 공동체 모임에는 총 5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대부분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재직 중이며 교사 A를 제외하고는 평균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약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급의 담임을 맡아서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사	성별	지역	경력	담당 학급	
				2014년	2015년
A	여자	경기	25년	4학년	3학년
B	여자	경기	10년	6학년	6학년
C	여자	경기	10년	1학년	음악전담
D	여자	인천	10년	6학년	3학년
E	여자	경기	10년	5학년	4학년

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7월에 연구자와 참여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의 구체적인 횟수, 날짜, 시간 등을 정하고 교사들이 모임을 통해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정하였다. 이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통해서 총 8번의 모임 동안 음악교과의 활동 영역에 집중해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을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났듯이 각 각의 주제를 토론하고 다음 번 모임 전까지 이 전 토론한 내용을 각자의 음악수업에 적용하고 이후 교사 학습공동체 모임에서 적용한 과정과 질문, 발견된 문제 등에 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동영상으로 찍은 각자의 음악수업을 다 같이 보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자발적인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토론 주제 안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사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초등교사 학습공동체 토론 날짜 및 주제

날짜	토론주제
2014년 8월	가창
2014년 9월	가창 적용
2014년 9월	기악
2014년 10월	기악 적용
2014년 11월	창작
2014년 12월	감상
2014년 12월	창작 및 감상 적용
2015년 1월	수업 동영상 토론

2. 연구도구

1) 성찰저널

매회 교사 공동체 모임이 끝난 직후에 초등교사들은 성찰저널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연구 초반에 연구자는 교사들에게 성찰저널 구조를 제공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임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무엇을 토론하였나? (2)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모임이 진행되었나? (3) 무엇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나에게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가왔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6) 이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기여도는 무엇인가?

각 교사는 총 8번의 성찰저널을 작성하였고, 한 교사 당 매회 3-5 페이지의 성찰저널을 작성하여서 총 약 100페이지가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음악수업 관찰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개인적인 참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음악수업을 관찰하였다. 관찰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대화, 행동, 물리적 조건 등을 연구자의 오감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음악수업 관찰에서 연구자는 비참여자로 거리를 두고 교사들의 음악 악곡 및 활동, 지도방법, 학생과의 관계,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교사들의 음악수업 관찰은 교사공동체 모임이 진행되었던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루어졌고, 모임이 끝난 후인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 차례 더 진행되었다.

3) 인터뷰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관점에서부터 매일 매일의 삶의 주제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Kvale, 2007). 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 공동체의 교육적인 의미와 이와 관련된 공동체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인터뷰의 전반적인 주제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의미 있는 일화, 공동체 안에서의 동료교사와의 관계, 음악수업에서의 적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추가적인 질문은 인터뷰 내용에 의해서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되어졌다. 인터뷰는 음악수업 관찰이 끝난 후에 교실이나 교사 휴게실에서 이루어졌고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내용은 분석을 위해서 전사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먼저 수집된 자료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전체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들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Wiersma & Jurs, 2005). 그 다음에 반복되는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코딩하여 초기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코드의 예로는 음악수업 전략, 인식 변화, 자극 및 반성, 소수의 인원, 적용 과정 등이 있다. 이 후에 초기 코드들 사이에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 범주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주제들은 학습공동체의 개인적 참여의미, 학교까지의 변화,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구분되어졌다. 분석된 범주들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해석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로 나누어서 정리되었다.

IV. 결 과

본 연구는 음악교과와 관련된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개인적 참여 의미, 초등교사학습공동체 내부로부터 학교까지로 연결된 변화,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촉진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1.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개인적 참여 의미

본문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초등교사들이 음악교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크게 다양한 음악수업전략 발견, 음악교과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자극 및 반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다양한 음악수업전략 발견

초등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동료교사들과 협동하면서 음악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전략을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사 A는 가창수업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성찰저널에서 다른 교사가 제안한 립싱크 방법이 흥미로웠다고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실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반주나 교사의 시범 창을 들으며 내가 부른다는 생각으로 립싱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사 C가 준 아이디어인데 재밌을 것 같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해 보아야겠다. 단,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팁을 주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좀 소극적이라...어떨지...(교사 A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이후에 실제로 교사 A는 립싱크 방법을 4학년 음악수업시간에 적용해보았는데 이 방법이 학생들의 가창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수업시간에 악보를 보면서 두 번 정도 곡을 들어 보게 하였다. 그리고 곡을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틀어주고 실제로 소리 내어 노래 부르지 말고 입만 뻥긋거리며 립싱크를 하도록 하였다. 지난 번 교사 C가 알려준 팁을 써 보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속 강조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교사 A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운 전략들을 음악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들이 자신의 학급 상황이나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새롭게 얻은 여러 수업전략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임이 끝난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 D는 동료교사들로부터 배운 여러 아이디어들을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고 설명하였다:

솔직히 다 해볼 수는 사실 없는거니깐...그래서 반응을 보고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적용해보는거.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아, 적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나한테는 잘 안맞는구나하고 깨닫는 것도 되구요. 이걸 조금 어렵구나 그렇다면 뭐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해볼 수도 있는거고. 선택해서 적용해보면 되는거니깐.(교사 D의 인터뷰에서)

비록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는 음악교과를 위해서 형성되었지만 초등교사의 특성 상 참여교사들은 서로에게 배운 아이디어들을 음악교과에 한정 짓지 않고 다른 일반 교과에도 확대하여서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 E는 다른 교사들에게 배운 수업기술을 여러 교과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사 C가 중간에 뭐 애들... 아츠프로펠처럼 중간에 점검하는 거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술이라던가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미술시간에 뭐... 그림을 그리다가 말하지 말고 한번씩 내가 미술관에 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돌아봐..라고 얘기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앉아도 돼... 사회시간에 모둠활동을 할 때 뭔가 빨리 맞춰야되거나 했을 때 그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틀어주면은 아이들이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이... 1분, 3분 요렇게만 주면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는데 뭔가 급박한 음악이 흐르니깐 애들이..더 막 집중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교사 E의 인터뷰에서)

이렇듯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협동하고 토론함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들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또한 직접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효과성까지 검증할 수 있었다.

2) 음악교과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

본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웠던 점은 교사학습공동체 안에서 동료들과 협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들은 음악수업 전략뿐만 아니라 음악교과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 성찰저널에서 교사 C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록하였다:

변한 것이 있다면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이나 했다고 하는 내가 과연 음악수업에서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하면 음악 수업이 즐거워질까, 음악 수업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교사 C의 마지막 성찰저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참여교사들은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보다 더 음악수업을 잘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교사학습공동체 모임 안에서 동료교사들과 대화하면서 음악수업의 초점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교사 C의 수업을 참관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즐거운 음악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게임을 도입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포구락과 부채춤을 배우면서 이와 연관된 게임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이나 활동 및 내용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교사 B는 동료교사와의 협동을 통해서 가창수업 때 게이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게이름으로 부르기에 대한 내용은 나에게 조금 신선했다. 실제 게이름으로 부르는 활동을 거의하지 않기에 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주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에 게이름으로 부르는 활동을 하는 것은 왠지 시간 때우는 것이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활동이 아주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교사 B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이러한 교사의 생각의 변화는 세부적인 음악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뷰 때 교사 B와 E는 음악활동 중 창작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동료 교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창작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하였다:

우선은 제가 창작을 한 번도 거의 다 시도를 잘 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창작에서 인제..리듬꼐 만드는 거랑 그런..거기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조금 적용시킨거 같아요. 시킬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교사 B의 인터뷰 중에서)

그 때 교사 D가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뭐가 쉽고, 누구는 뭐가 어렵고 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교사 D 같은 경우는 창작이 되게 쉽다고...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창작이 되게 어렵거든요..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말씀.. 창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본인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창작도 한 번 해볼만하겠구나...(교사 E의 인터뷰 중에서)

실제로 수업 참관 중에 교사 B는 6학년을 대상으로 팬 비트를 사용한 창작 수업을 하였고, 교사 E는 4학년을 대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마디의 리듬과 음을 결정하는 우연성을 활용한 창작활동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들은 교사 협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제한된 생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음악수업을 고안할 수 있게 되었다.

3)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자극 및 반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동료교사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자신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게 되고 전반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일례로 교사 A는 창작수업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성찰저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사실 생각해 보니 올해 학생들과 창작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태성 출판사 교과서가 제재곡 중에 생소한 곡이 많고 가르쳐야 할 분량이 많다는 핑계로 항상 곡을 익히고 연주하는 수업위주로 음악수업을 하고 창작이 나왔던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다. 지금이라도 창작수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 A의 다섯 번째 성찰저널 중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교사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아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하니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연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웃음)(교사 D의 인터뷰 중에서)

열심히 해야겠다...(웃음)... 난 이정도면 그래도... 내가 음악전공하고.. 뭐 했으니
 칸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내가...그 때 얘기 들어보고 나니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는 마음이 들었죠.(교사 C의 인터뷰 중에서)

초등교사들은 이러한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실제 음악수업을 위해서 좀 더 다양
 하게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교사학습공동체
 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의 음악수업에 반영되었다. 교사 D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음악수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러 번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반성을 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 기회를 통해 자료도 자꾸 만들게 되고 수업준비도 더 부지런히
 하게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음악수업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모든 교사가 열
 심히 하려는 마음과 열정이 있지만 학교 사정과 업무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구회를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면 교사 스스로 연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교사 D의 일곱 번째 성찰저널 중에서)

2. 초등교사학습공동체 내부로부터 학교까지로 연결된 변화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발견된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초등교사들이 교
 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내적인 변화에 많은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러한 변
 화를 교사학습공동체 밖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습공동체의 참여교사들은 음악교과와 관련하여 새롭
 게 배운 지식이나 자료를 각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았
 다. 교사 B는 이러한 이유로 주변 교사들의 소극적인 탐구를 들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선생님들이 약간... 저는 모르면 애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교사의 권위를 떨어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
 에 후배한테도 배울게 많은데 꼭 선배라고, 나는 선배니깐 후배한테 물어보면은 창
 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오히려 더 저한테 물어보는 사
 람들도 없었던거 같고....(교사 B의 인터뷰 중에서)

교사 B가 언급하였듯이 초등교사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변 교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이
 러한 태도는 교사 B가 자신의 지식을 주변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교사 E는 초등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자료의 보급성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음... 일단은 뭐 아이스크림...통해서 클릭만 하면 음악이 나오니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더 음악적인 것을 알기위해서 요청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클릭만 하면 음악이 나오고 리코더 플래쉬 틀어놓고 리코더 연주해...그러면 되니깐... 음악감상도 음악 틀어놓고 학습지하면 되는거니깐.(교사 E의 인터뷰 중에서)

음악교과와 특성상 대부분의 교과서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은 음악교과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부족을 느끼지만 이러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사학습공동체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각 학교의 주변동료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학교의 변화까지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3.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

본 연구의 초등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은 대부분 학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교사들이 학교생활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토론과 협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영향을 준 교사학습공동체의 요인은 소수의 인원과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1) 소수의 인원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협력적인 관계이다(서경혜, 2009; Eak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평적 관계 안에서 소수의 인원이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소수 구성원의 요소는 개개인의 교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D도 이러한 점 때문에 교사학습공동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단 그런 기회(수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를 갖게 되니깐... 그리고 소수고, 그래서 빠지면 안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 같고.(교사 D의 인터뷰 중에서)

또한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 때문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준비해오는 모임 자료가 공동체의 협동이나 토론 내용의 질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모임이 진행되면서 개개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오게 되었다. 교사 D도 성찰저널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였다:

가장 적용은 끝났지만 틈틈이 다른 시간에도 적용해서 다음에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원이 작아 한 명이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내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도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교사 D의 두 번째 성찰저널 중에서)

이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인해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개개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

교사학습공동체는 가설이나 이론을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검증하는 실천적인 과정을 강조하는데(서경혜, 2009),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적용과정이 초등교사학습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음악교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학급 안에서 새로운 지식과 전략을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지식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은 고스란히 수업 안에 적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번에도 가창에 대한 협의를 한 후에 위에서 이야기 되었던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보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발전된 수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수업을 해보고 아쉬웠던 점이나 수업 중에 가르치기 어려웠던 점은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나의 수업에 적용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교사 A의 두 번째 성찰저널 중에서)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학급에서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한 후에 교사학습공동

체에서 적용하는 과정, 발생된 문제점 및 의문점 등을 서로 묻고 토론하였는데 다른 구성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새롭게 얻은 전략 및 지식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교사 C는 성찰저널에서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미리 이 활동을 적용해 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장면을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직 경력이 10년이긴 하지만 2개 학교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듣게 되는 여러 학교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교사 C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교사 A와 C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교사들은 배운 지식을 직접 적용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나눈 새로운 지식, 자료, 전략 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본인이 제안한 방법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교사 A는 2부 합창에서 자리를 갈라 앉아 연습해보았다고 하셨다. 지난번 내가 이야기 했던 활동이었는데 해보셨다고 하니 꽤 기분이 좋았다. 더군다나 결과도 좋았다고 하니 더 뿌듯하기도 했다. 사실 나는 이렇게 2부 합창을 지도 하고서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지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지도해 봐야겠다.(교사 D의 두 번째 성찰 저널 중에서)

나 역시 저번에 이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사 A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으며 내가 만든 이 창작 활동지에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검증이 되었다는 생각에 만족감과 안도감이 들어 계속적으로 창작에서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응용하여 창작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교사 E의 일곱 번째 성찰저널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대부분 음악전담이 아닌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음악수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인들의 수업전략과 자료가 다른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

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음악교수능력을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공동체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과와 관련된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동료로부터 다양한 음악수업전략을 배울 수 있었고, 음악교과의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며, 자신의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선우진, 방정숙, 2014; 박나실 외 2015; 이은혜, 2015; Brodie, 2014; Pelletier,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사들의 교수·학습경험에서 쌓인 암묵적 지식이 교사들의 성장 및 발전에 주요한 자료 및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쌓인 내재적인 지식인 암묵적 지식은 강연이나 글로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전해진다(조운정, 배정현, 2015). 따라서 교사들의 긴밀한 협동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음악교사들은 자신들만의 경험과 지식을 동료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교사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의 개인적인 변화가 개개인의 학교에 있는 동료교사들에게까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밖에서 형성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변화가 학교 내까지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동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iesz, 2010). 이러한 동료는 “교사학습공동체밖에 있는 교사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론에 익숙하지 않지만 비슷한 교육철학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자”로 정의내릴 수 있다(Niesz, 2010, p. 42). 본 연구의 초등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교과를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동료를 찾기 어려웠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내적인 변화가 공동체 밖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교사들 간의 음악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의 소수의 인원과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Eaker et al., 2002). 이 때 공동체의 소수의 인원은 각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자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오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모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김송자 외, 2013). 또한 초등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Pelletier, 2013; Shin, 2013) 이는 교사들이 공동체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Stoll & Louis, 2007). 따라서 음악교과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할 때 다수의 인원보다는 3-7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음악교과에 대한 고민과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공동체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이듯이 과학, 수학, 사회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공동체에 비해서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협력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중등 및 고등 음악교사로 연구가 확대되어 음악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사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된 통합수업을 위해서는 음악교사들 뿐만 아니라 타 교과 교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초등교사와는 달리 중등 및 고등교사들은 교과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간의 연계되고 통합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 안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과 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등과의 비예술과목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수업구성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교육기본법**. 세종: 저자.
- 김대훈 (2014). 지리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6), 970-984.
- 김병찬 (2007). 교원연수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2007년 제49차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송자, 맹재숙, 박수정 (2013). 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227-247.
- 박나실, 장연우, 소경희 (2015). 내부로부터의 학교 변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3(4), 92-114.
- 서경혜 (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 선우진, 방정숙 (2014). 교사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연구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 분석. **한국수학교육학회**, 17(3), 189-203.
- 신미정 (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사 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신지혜 (2015). 실행공동체를 활용한 교사 전문성 개발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사 전문성 개발 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4(3), 69-89.
- 오옥환 (2005). **교사전문성**.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호, 이지혜, 허소윤, 박세준, 한송이, 한은정 (2015).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 **교육학연구**, 53(4), 77-101.
- 이은혜 (2015). 초등미술과 수업비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동학년 교사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43, 201-229.
- 정민희, 남상준, 권정화 (2013). 초등 교사들의 사회과 관련 PLC 참여경험의 의미. **교원교육**, 30(1), 1-19.
- 조윤정, 배정현 (2015). 교사학습공동체 기반 연수에 관한 질적 연구: 교과연수년 직무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33-65.
- 하명진 (2011).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Brodie, K. (2014). Learning about learner errors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85, 221-239.

- Bush, J. E. (2007). Importance of various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workshop topics as determined by in-service music teacher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6, 10-18.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 DuFour, R. (2004). What i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Educational Leadership*, 61(8), 6-11.
- DuFour, R. & Eaker, R. (1998).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student achievement*.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 Kvale, S. (2007). *Doing interview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Lalor, B. & Abawi, L. (2014).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enhancing teacher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edagogies and Learning*, 9(1), 76-86.
-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NCTAF). (2003). *No dream denied: A pledge to America's children*. Washington, DC.: Author.
- Niesz, T. (2010). Chasms and bridges: Generativity in the space between educators' communities of practi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 37-44.
- Pelletier, C. L. (2013). The learning communities of exemplary mid-career elementary general music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Rogers, D. L., & Babinski, L. M. (2003).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yoo, J., Goode, J., & Margolis, J. (2015). It takes a village: supporting inquiry- and equity-oriented computer science pedagogy through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omputer Science Education*, 25(4), 351-370.

- Shin, J. (2013). Communities of practice: The effects of interactions among in-service music teachers in a graduate program on their development as educators.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toll, L., & Louis, K. S. (200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elaborating new approaches. In L. Stoll & K. S. Louis (Ed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Divergence, depth, and dilemmas* (pp. 1-13).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Vavasseur, C. B. & MacGregor, S. K. (2008). Extending content-focused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online communities of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40(4), 517-536.
- Watson, C. (2014). Effectiv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he possibilities for teachers as agents of change in school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1), 18-29.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ersma, W., & Jurs, S. G. (2005).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8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ABSTRACT

A Case Study of Elementary Teacher Learning Community for a Music Subject

Jihae Shi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ducational meaning of elementary teacher learning community for a music subject. For the study, observation of five teachers' music classes, individual interviews, and reflective journals were gathered and analyzed. The summary of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through peer-to-peer interaction, elementary teachers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learned music teaching strategies, acquired their change of perspectives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and reflected their own music classes. Second, the personal development through teacher learning community was not expanded outside the community. Finally, fewer people and the process to apply new knowledge to teachers' music classes were important element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mong elementary teachers in the community.

Key words: teacher learning community, elementary teacher, music subject, professional development

투고일: 2016년 5월 31일, 심사(수정): 07월 19일(07월 23일), 게재확정일: 08월 10일